

비도덕적 치과 의료행위 집중 감시한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6개월간 시행
치과계·지자체·중앙부처 협력...평가 결과 행정처분 의뢰

광주시치과의사회가 최근 사무장 치과 등 비도덕적 치과 진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간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28일 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코자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6개월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A치과 사태로 수천명이 치과치료에 따른 부작용 발생과 앞서 지난 2015년 12월 B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치과계 전문가가 평가제 추진 필요성 증대와 면허관리제도의 중요

성이 대두되면서 비롯됐다.

이번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시범사업 시행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 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광주에서는 지역평가위원은 14명, 비의료인을 포함한 시도윤리위원회 11명이 구성됐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및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는 의료법상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답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치과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앞으로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 한 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창현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일부 치과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청연한방병원 우즈벡 현지서
한의학 치료 기술 전파 ‘눈길’

청연한방병원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한의학 진료세미나에서 진료시연을 하는 등 한의학 치료 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에게 한의학 이론 교육 및 우수한 임상치료 기술을 전수하는 ‘한-우즈베키스탄 한의학 진료 세미나’가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현지 의과대학 교수진 및 의료인 대상으로 한의학의 우수 치료기술 전수를 통해 한의학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선 청연한방병원 박종승 국제진료센터장은 한의학 피부·비만 치료에 대한 이론 교육과 진료시연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희대한방병원, 부산대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4명의 한의사가 함께 참석해 함께 했다.

청연한방병원 박종승 국제진료센터장은 “한의학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자리에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함께 하게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의학 연수사업, 한의학 진흥 등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오송지기자



최근 국립나주병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 특화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및 활동영역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나주병원, 전국 첫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회복경험 바탕 정신장애 해소 도와...민간영역 확대 기대

국립정신의료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 특화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및 활동영역 구축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란 자신의 회복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는 회복전문가로 정신장애 특화 직종을 뜻한다. 병원은 노동 시장 진입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동료지원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

영해 이와 연결된 다양한 활동영역을 개발 및 구축할 방침이다.

양성과정은 2019년 상·하반기 2차례 운영되며, 30시간의 이론과 8곳의 기관 실습 등 3개월 과정으로 구성됐다. 상반기 교육과정은 모집공고 및 지원자들의 면접을 통하여 13명이 최종합격해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동료지원가의 의미와 배경, 동료지원가의 활동 소개, 1:1 멘토링을 위한 상담의 실제, 회복축진을 위한 전략 등 개인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동료지원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국립나주병원은 2019년 총20명의 동료지원가 양성을 목표로 이들의 회복경험, 자기효능감, 희망과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동료지원가들의 1:1 멘토링, 집단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정신장애 인식개선 강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보현 원장은 “국립나주병원은 호남권역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정신장애인의 직종 개발을 위한 직업재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송지기자

美 뉴스위크지 선정 ‘한국 최고의 병원’
전남대병원, 지방 국립대병원 중 ‘1위’

전국 전체 병원 중 11위 기록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사진)이 세계적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평가조사에서 10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중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이자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국내 최고 의료수준과 국제적 경쟁력을 다시 입증한 셈이다.

2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의 자매지인 뉴스위크에 따르면 독일의 글로벌시장조사 및 소비자 데이터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의뢰 조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한국 최고의 병원(WORLD'S BEST HOSPITAL SOUTH KOREA 2019)’에서 전남대병원이 87.0점을 획득, 1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스타티스타가 수 만명의 의사·병원관리자 및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서울아산병원(93.1점)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삼성서울병원(92.8점)·3위 서울대병원(92.4점)·4위 연세대세브란스병원(90.4)·5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90점)·6위 아주대병원(8



9.7점)·7위 강북삼성병원(89.1점)·8위 서울대분당병원(88.2점)·9위 고려대안암병원(88.1점)·10위 경희대의료원(87.4점) 순이었다.

이어 11위를 기록한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10위권 대열에 올랐으며 지방국립대병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남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임과 함께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또한 KTX 호남선 개통 등으로 지역환자의 수도권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우수한 진료 및 연구를 펼치고 있다는 것도 재차 확인했다.

이삼용 병원장은 “세계적 언론매체로부터 전남대병원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세계적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지기자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유방암·위암’ 치료 잘하는 병원 선정

심평원 적정성 평가 1등급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유방암·위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의료기관 중 2017년 입원 진료분에 대해 수술환자가 발생한 유방암 185개 기관과 위암 2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각각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위암 4년 연속 1등급을, 유방암은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환자가 처음 발생한 첫 1등급을 획득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위암 4년 연속, 유방암 6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해 암 치료

잘하는 병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유방암 종합점수 100점(전체 평균 97.82점)·위암 98.18점(전체 평균 97.32점)을 기록했으며, 화순전남대병원은 위암 100점·유방암 99.31을 획득했다.

암 적정성 평가는 암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구조·과정·결과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위암 13개 지표와 유방암 11개 지표에 걸쳐 이뤄졌다. 양 병원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100점 만점 및 고득점을 획득했다.

/오송지기자

조선대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조선대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센터장 임동훈, 조선대병원 교수)가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금연유관기관 및 다양한 조직을 기반으로 금연사

업추진단(정책자문단, 실무운영위원, 본과협의회)을 구성,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정책방향, 지역사회 자원연계, 네트워크 활성화로 흡연율감소에 기여해 이번 기념식에서 ‘금연유공자’로 선정돼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오송지기자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